

칼빈과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해석학 연구

데 이비드 포드(David Ford) 교수의 지도 아래 라영환(42세) 교수가 쓴 학위 논문은 “칼빈과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해석학에 관한 연구”(The Eschat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and Wolfhart Pannenberg)다.

라영환 교수는 16세기 신학자 칼빈과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판넨베르그의 종말론적 해석학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판넨베르그의 신학이 칼빈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현대신학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신학의 자원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다. 계몽주의 이후로 서구신학에서는 신학과 신앙의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어 왔다. 라 교수는 신학함에 있어 성경의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응이라 하겠다. 신학의 자원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루기 위해 라 교수는 판넨베르그를 선택했다. 판넨베르그는 20세기 다른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학문적 치밀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대신학에 있어 판넨베르그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세속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일반학문의 영역 가운데 기독교신앙의 보편성을 증명하려한 데 있다. 하지만 성경을 신학의 원천적 자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그 한계라 하겠다. 본 연구의 공헌은 그동안 음지에 묻혀있던 칼빈의 종말론을 양지로 드러낸 데 있다. 칼빈에게는 개인적 종말론만 언급되어있지 우주론적 종말론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학계에서는 칼빈의 종말론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라 교수는 기독교강요, 예언서주석, 그리고 고린도전서 및 에베소서 주석 등을 검토함으로써 칼빈의 성경 해석에 있어 종말론이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로 작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칼빈의 종말론은 그의 예정론, 섭리론 그리고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한편 본 논문은 판넨베르그와도 관련된 공헌이 있다. 판넨베르그는 단지 철학적 해석학에서 발견한 자기의 원리들을 지지하기위해 자료(proof texting)로 성경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판넨베르그는 그의 신학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라 교수는 이 한계를 지적했다.

라영환 교수는 ‘신학 있는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는 신학의 꽃입니다. 사역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넘치게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목회이기에 깊은 신학적 사색조차 할 겨를 없이 사역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가 성경, 상황, 전통의 긴장 속에 끊임없이 신학함을 추구할 때 진정 시대의 핵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아세아연합신학교(B.A)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미국 트리니티대학(M.A)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